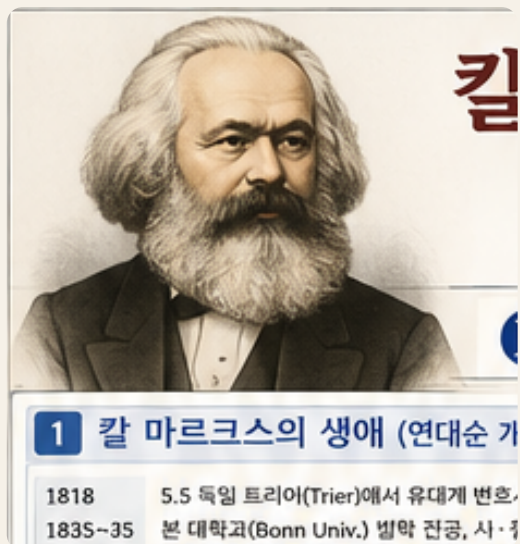


칼 마르크스(Karl Marx)

생애·사상·정치경제학·영향과 논쟁

원전과 현대 연구를 구분해 읽는 체계적·비판적 종합 보고서



핵심 질문

마르크스는 무엇을 실제로 주장했는가?
후대의 '마르크스주의'는 어디에서 그를
계승·변형했는가? 노동가치론·역사유물
론·국가론은 오늘날 무엇을 설명하고 어
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가?

본 보고서는 찬양·비난의 이념적 편정을 피하고,
마르크스·엔겔스 원전, 후대 마르크스주의의 체
계화, 현대 학계의 상이한 해석과 비판을 구분한
다.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분석 기준일: 2026-08-25

EXECUTIVE SUMMARY

핵심 결론

마르크스의 가장 지속적인 기여는 “사회주의 설계도”보다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관계로 분석한 방법**에 있다. 상품·화폐·자본·임금노동을 자연적·영원한 제도로 보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력 판매, 경쟁과 축적, 계급권력, 국가와 이데올로기가 얽힌 체계로 보았다. 그 체계는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주기적 위기, 불안정한 노동, 집중되는 경제권력, 상품화의 확대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1. 생애와 사상의 결합

언론 검열, 망명, 빈곤, 노동운동과의 접촉은 철학적 비판을 정치경제학과 조직정치로 이동시켰다.

2. “초기/후기”는 단절보다 재구성

1844년의 소외 언어는 후기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품물신성·자본의 지배 같은 더 구조적인 범주로 재배치되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알튀세르는 1845년 전후의 “인식론적 단절”을 강조했다.

3. 역사유물론은 단순 경제결정론이 아님

생산과 재생산을 구조적 제약으로 중시하지만 실제 역사분석에서는 정치, 국가, 정당, 법, 이데올로기, 우발성이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

4. 노동가치론은 가장 논쟁적인 부분

주류경제학은 한계효용·한계생산성·일반균형 등으로 가격을 설명하며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치론의 목표가 단기 가격예측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노동의 형식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5.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취도 인정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를 해체하고 세계시장·기술·생산력을 확대한 역할을 인정했다. 비판의 초점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사회관계였다.

6. 소련=마르크스는 성립하지 않음

레닌의 전위당,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당-국가와 강제집단화, 마오의 농민전쟁과 문화혁명 등 각 시대의 추가·변형이다. 마르크스 원전만으로 그 제도를 직접 도출할 수 없다.

7. 현대적 설명력은 영역별로 다름

축적·집중, 노동통제, 상품화, 세계시장,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 관리에는 강한 분석적 영감을 준다. 반면 개별 가격, 금융자산, 제도다양성, 성·인종, 서비스·데이터 가치의 실증분석에는 별도 이론이 필요하다.

8. 가장 좋은 독법

“예언자”나 “전체주의의 원조”로 읽기보다, 19세기 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사회과학 고전으로 읽고 각 명제의 범위와 경험적 성과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직접 인용을 읽는 법

보고서의 짧은 원문 인용은

원전

임을 명시한다. 그 밖의 설명은 원전의 문맥을 요약하거나 현대 연구의 해석을 종합한 것이다. 동일한 텍스트도 인문주의적·구조주의적·분석마르크스주의적·가치형태론적 독해가 다를 수 있다.

CONTENTS

목차

1. 생애: 트리어에서 런던까지
2. 지적 형성: 헤겔·포이어바흐·스미스·리카도·프랑스 사회주의
3. 초기와 후기 마르크스, 주요 저작
4. 철학과 역사이론의 핵심 개념
5. 정치경제학: 상품에서 축적·위기까지
6.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과 현대 자본주의
7. 역사발전 도식과 경제결정론 논쟁
8.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
9.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후대 마르크스주의
10. 주요 비판과 반론: 경제학·철학·정치학·역사학
11. 현대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과 베버·뒤르켐 비교
12. 냉전 이후·2008년 이후의 재평가
13. 부록 A: 생애 연표
14. 부록 B: 주요 저작 연표
15. 부록 C: 핵심 개념 20개
16. 부록 D: 마르크스·스미스·리카도·헤겔 비교
17. 부록 E: 마르크스·레닌·스탈린·마오 비교
18. 부록 F: 현대적 설명력 높은/낮은 영역
19. 부록 G: 대표적 오해와 실제 주장
20. 부록 H: 원전 10권 + 연구서 20권
21. 참고문헌·온라인 원전

CHAPTER 1

1. 생애: 트리어에서 런던까지

1.1 출생과 유대계 가문의 역사적 배경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 라인란트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부친 하인리히 마르크스는 법률가였고, 부계·모계 모두 랍비 가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라인란트가 프로이센 지배로 편입된 뒤 유대인의 법률직 종사가 제약받자 부친은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배신”이라기보다 나폴레옹기의 유대인 해방이 후퇴한 제도환경, 전문직 경력, 계몽주의 문화가 겹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르크스 자신도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고 성년기에는 종교적 신앙과 거리를 둔 급진적 세속주의자가 되었다.

가족은 극빈층이 아니었다. 부친은 교육받은 중산층 전문직이었고, 마르크스는 고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 형성을 “빈곤한 노동자 출신의 체험”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지식인·언론인·망명객으로서 산업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을 관찰하고, 엥겔스가 제공한 맨체스터 산업현장의 경험과 자료를 흡수했다.

1.2 본·베를린·예나: 법학에서 철학으로

1835년 본대학교에서 법학을 시작했으나, 1836년 베를린대학교로 옮겨 철학과 역사에 집중했다. 이곳에서 헤겔 사후의 논쟁을 이어가던 청년헤겔학파, 특히 브루노 바우어 등의 급진적 종교·정치 비판과 접촉했다. 1841년 박사학위는 예나대학교에서 받았지만 **예나에 재학한 것은 아니다**. 논문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 차이를 다뤘으며, 당초 대학 강단 진출을 생각했으나 프로이센 당국이 급진적 헤겔학자들을 억압하면서 현실성이 사라졌다.

마르크스의 지적·망명 경로: 1818-1883

도시의 이동은 철학 → 언론 → 정치경제학 → 국제 노동운동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과정과 겹친다.



핵심 전환점 1842-43 물질적 이해관계의 문제 → 1844 정치경제학 연구 → 1845-46 역사이론 → 1850년대 이후 자본주의 분석 → 1864 국제 노동정치

그림 1. 마르크스의 지적·망명 경로. 예나대학교는 재학지가 아니라 박사학위 수여기관이다.

1.3 언론활동과 “물질적 이해관계”의 발견

1842-43년 마르크스는 쾰른의 Rheinische Zeitung 편집자로 활동했다. 산림절도법, 토지·농민 문제, 자유무역과 보호관세 논쟁을 다루면서 추상적 철학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1859년 서문에서 그는 이 시기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 말해야 했던 경험이 정치경제학 연구로 향하게 했다고 회고한다.

1.4 파리와 엥겔스: 철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1843년 제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한 뒤 파리로 옮겼다. 프랑스 사회주의·공산주의, 프랑스혁명 전통, 영국 정치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접했고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소외노동을 분석했다. 같은 해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두 번째 만남이 장기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 산업자본주의, 차티즘과 영국 노동운동, 기업 경영의 실무 정보까지 제공했다.

1.5 브뤼셀·1848년 혁명·런던 망명

프로이센의 압력으로 1845년 프랑스에서 추방된 마르크스는 브뤼셀에서 엥겔스와 『독일 이데올로기』를 집필하고 공산주의자동맹에 참여했다. 1848년 『공산당 선언』 출간 직후 유럽혁명이 발발하자 파리와 쾰른으로 이동해 Neue Rheinische Zeitung을 운영했다. 혁명 패배 뒤 다시 추방되어 1849년 런던에 정착했다.

1.6 런던: 빈곤, 연구, 가족

런던 초기의 마르크스 가족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정기적 수입이 부족했고 자녀들의 질병과 사망이 겹쳤다. 부부에게는 일곱 자녀가 있었으나 세 딸만 성년까지 생존했다. 엥겔스의 지속적인 금전 지원은 마르크스의 연구와 가족생활을 실질적으로 지탱했다. 동시에 마르크스는 New-York Daily Tribune 등 언론에 광범위한 국제정세 기사를 기고했고, 대영박물관에서 경제학·공장보고서·통계·역사를 연구했다.

1.7 제1인터내셔널과 말년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First International) 창립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창립선언과 규약 작성, 총평의회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노동조합, 노동시간, 협동조합, 정치행동, 아일랜드 문제, 파리 코뮌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 개입했다. 1872년 헤이그 대회에서는 바쿠닌계 ана키스트와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건강 악화와 가족의 죽음 속에서도 러시아 농촌공동체·인류학·수학 등을 연구했으며 1883년 3월 14일 런던에서 사망했다.

사실 확인: 마르크스와 예나대학교

“마르크스가 예나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그는 본·베를린에서 수학했고, 박사논문은 예나대학교에 제출해 1841년 학위를 받았다.

CHAPTER 2

2. 지적 형성: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비판했는가

마르크스의 지적 계보와 후대의 분기



주의: 이 도식은 "영향과 재해석"의 계보이지, 각 사상가가 마르크스와 동일한 입장을 공유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림 2. 마르크스의 지적 계보와 후대의 분기.

2.1 헤겔: 역사성·부정성·관계적 사고

헤겔에게서 마르크스가 가장 깊게 배운 것은 사회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과 관계**로 보는 방식, 그리고 모순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헤겔이 국가와 정신의 자기전개를 중심에 두는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는 현실의 인간·노동·재산·시민사회가 정치형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흔히 “헤겔을 거꾸로 세웠다”는 비유가 쓰이지만, 실제 관계는 단순 역전보다 복잡한 비판적 전유에 가깝다.

2.2 포이어바흐: 종교비판과 감각적 인간, 그리고 한계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인간 본질의 투사로 파악해 청년 마르크스에게 결정적 유물론적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가 인간을 추상적 종(種)으로 보고 사회적·역사적 실천과 계급관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The philosophers have only interpreted the world...”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Marx, Theses on Feuerbach, XI (1845)

2.3 애덤 스미스: 분업과 부의 확대, 그러나 조화론 비판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장한다는 설명, 노동과 가치, 임금·이윤·지대의 분배에 관한 틀을 제공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깊게 계승하면서도 시장교환의 형식적 자유·평등이 생산과정의 계급권력을 가린다고 보았다. 또한 스미스가 노동가치 설명과 소득요소 비용설명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2.4 리카도: 노동가치론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자

리카도는 재생산 가능한 상품의 상대가치를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과 연결했고, 임금·이윤의 분배갈등을 분석했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엄격한 추상화와 노동가치 전통을 계승했지만, **노동(labour)**과 **노동력(labour-power)**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윤의 원천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가치가 왜 반드시 화폐형태로 나타나는지, 상품 생산 자체가 어떤 사회관계를 전제하는지까지 밀고 나가려 했다.

2.5 프랑스 사회주의와 영국 정치경제학의 결합

생시몽주의, 푸리에, 프루동 등은 사유재산·빈곤·계급문제를 전면화했고, 프랑스혁명의 정치경험은 국가와 혁명 문제의 언어를 제공했다. 영국은 반대로 성숙한 산업자본주의, 공장제, 노동조합·차티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실험장이었다. 마르크스의 독창성은 독일 철학의 역사·변증법, 프랑스의 정치·사회주의, 영국의 경제학·산업현실을 한 비판 프로젝트 안에서 결합한 데 있다.

CHAPTER 3

3. 초기와 후기 마르크스, 그리고 주요 저작

3.1 “단절”인가 “연속”인가

쟁점 전통적으로 두 입장이 맞선다. 인문주의적 독해는 1844년의 소외·인간해방 문제와 후기 『자본론』의 물신성·지배 분석 사이의 연속을 강조한다. 반대로 루이 알튀세르는 1845년 전후에 헤겔·포이어바흐의 인간주의적 문제들을 버리고 과학적 역사유물론으로 넘어가는 “인식론적 단절”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는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동일성 어느 쪽도 텍스트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절충적 연구가 강하다. 초기의 철학적 어휘는 후기에는 가치형태·자본·생산관계 같은 더 역사특수적인 범주로 재구성된다.

연도	저작	집필 배경·핵심 주장
1843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 및 『헤겔 법철학 비판』	국가·시민사회·종교비판. 헤겔의 관념론적 국가론을 뒤집어 현실의 사회관계에서 정치형태를 설명하려는 전환.
1844	『경제학·철학 수고』	소외노동, 사유재산, 인간의 종적 존재, 공산주의를 둘러싼 초기 철학적 어휘. 생전 미출간.
1845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수동적 관조의 유물론을 비판하고 실천(praxis)을 강조. 제11테제가 가장 유명.
1845-46	『독일 이데올로기』(엔겔스와 공저)	생산·분업·소유·계급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재구성. 생전 미출간.
1847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 비판. 경제범주를 영원한 자연법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관계로 파악.
1848	『공산당 선언』(엔겔스와 공저)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역사역할, 세계시장, 계급투쟁, 공산주의 정치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
1852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계급이해, 국가, 정당, 농민, 정치대표, 우발성이 얹히는 구체적 역사분석의 모범.
1857-58	『그룬트리세』	정치경제학 연구노트. 생산·분배·교환, 자본의 순환, 기계·일반지성 등 『자본론』으로 가는 실험실.
1859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상품·화폐 분석과 유명한 서문. 생산력/생산관계, 토대/상부구조의 정식화.
1867	『자본론』 제1권	상품, 가치형태, 화폐, 노동력, 잉여가치, 노동일, 기계, 축적, 산업예비군, 원시적 축적.
1871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을 통해 기존 국가기구와 노동자 정치권력 문제를 재사유.
1875	『고타 강령 비판』	라살레주의 비판, 공산주의의 낮은/높은 단계, 분배, 국가, 노동 개념을 명확화.

3.2 저작을 읽을 때의 세 가지 주의점

첫째, 『경제학·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그룬트리세』 등 중요한 텍스트 상당수는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대 편집·발견 과정이 “마르크스”라는 정전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자본론』 2·3권은 마르크스의 완성 원고가 아니라 엔겔스가 방대한 초고를 편집해 사후 출간한 책이다. 셋째, 『공산당 선언』은 이론서이자 정치조직의 선언문이므로 그 압축적·수사적 명제를 『자본론』의 복잡한 분석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CHAPTER 4

4. 철학과 역사이론의 핵심 개념

4.1 소외

1844년 수고에서 소외는 노동자가 생산물에 대한 통제를 잃고, 노동활동 자체를 외적 강제로 경험하며,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뜻한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의 사회관계**다. 후기 『자본론』에서는 “소외”라는 도덕·인간학적 어휘의 빈도가 줄지만, 인간관계가 자본·가격·시장이라는 자립한 힘으로 대면한다는 물신성 분석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다룬다.

4.2 유물론과 역사유물론

마르크스에게 사람들은 임의의 관념만으로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이미 존재하는 생산관계·기술·제도·계급구조 안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구조가 자동으로 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역사는 조직된 행위, 정치투쟁, 전쟁, 법, 이데올로기, 국제관계의 매개를 거친다.

“Men make their own history...”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어지는 논점이다.

Marx, Eighteenth Brumaire (1852)

4.3 생산력·생산관계·생산양식

생산력은 노동력, 지식, 기술, 협업, 도구와 자연조건을 포함한다. **생산관계**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고, 누가 노동하며, 잉여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한 관계다. 두 요소의 결합이 **생산양식**이다. 마르크스는 일정 시점에서 기존 소유·지배관계가 새로운 생산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것을 기술이 자동으로 정치혁명을 유발하는 공식으로 환원하면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4.4 토대와 상부구조

1859년 서문의 “토대-상부구조”는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오독된 은유다. 경제구조는 법·정치·의식의 조건을 형성하지만, 상부구조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다. 『브뤼메르 18일』에서 국가기구, 관료제, 정당, 농민의 분산된 사회구조, 보나파르트의 정치술은 독자적 효과를 갖는다.

4.5 계급·계급투쟁·국가·이데올로기

계급은 소득구간만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노동과정, 잉여의 귀속, 시장의존성에 대한 관계적 위치다. 계급투쟁은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뿐 아니라 법률, 선거, 국가기구, 교육, 언론, 식민지 문제를 포함한다. 국가는 종종 지배계급의 공통 이익을 조직하지만 분파갈등과 사회통합을 조정해야 하므로 일정한 상대적 자율성을 보일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허위 정보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관계가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것으로 경험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

4.6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의 용어인가?

텍스트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dialectical materialis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 참고문헌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게오르기 플레하노프가 1891년 이 용어를 사용했고, 이후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에서 공식 명칭으로 정착했다고 본다. 엥겔스는 “유물론적 변증법”, 자연의 변증법, 자연·사회·사유의 발전법칙을 더 체계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후대 체계화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CHAPTER 5

5. 정치경제학: 상품에서 축적·위기까지

자본의 운동과 잉여가치: 한 장으로 보는 『자본론』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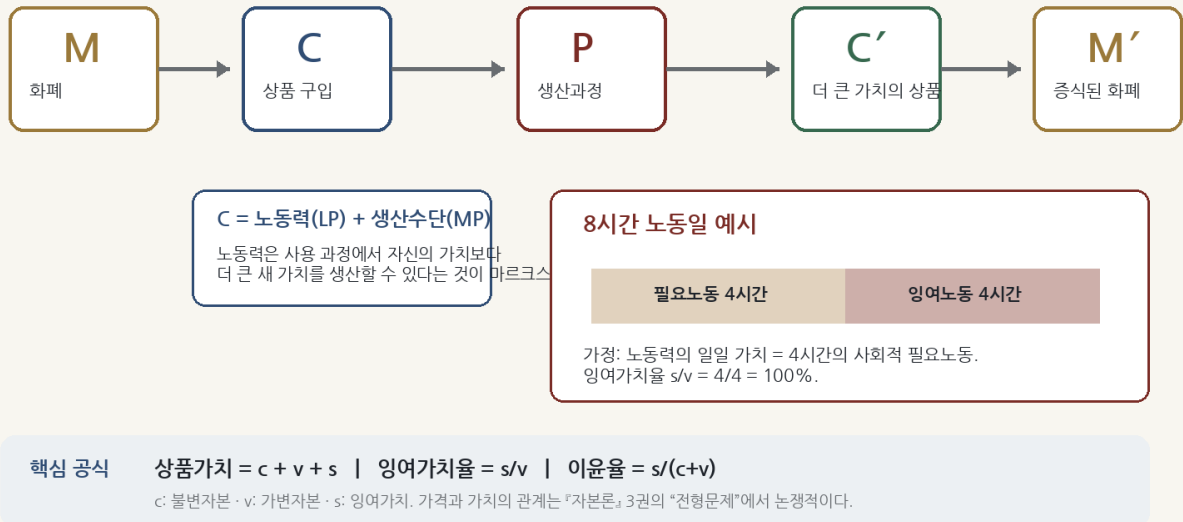


그림 3. M-C ... P ... C'-M'라는 자본의 순환과 잉여가치 예시.

5.1 상품: 사용가치·교환가치·가치

상품은 쓸모가 있는 **사용가치**인 동시에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사회적 형태다. 마르크스는 교환비율의 배후에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규정되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같은 셔츠를 비효율적인 개인이 10시간 걸려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 기술·숙련·강도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시간이 기준이다.

5.2 구체노동과 추상노동

재봉, 코딩, 운전은 서로 다른 **구체노동**이지만 상품교환에서는 서로 비교 가능한 사회적 노동의 지출로 환원된다. 이것이 **추상노동**이다. 현대 가치형태론은 여기서 마르크스의 독창성을 찾는다. 즉 가치가 노동이라는 물질이 상품 안에 “들어 있다”기보다, 사적 노동들이 시장을 통해 사회적 유효성을 얻는 특수한 사회형식이라는 것이다.

5.3 상품물신성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만든 사회관계가 가격, 이자율, 주가, “시장 요구” 같은 사물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물신성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실제로 시장 의존적 사회에서 개인은 가격신호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가 만든 관계가 객관적 외부힘처럼 작동한다.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

Marx, Capital I, ch. 1 (1867)

5.4 화폐와 자본

단순 상품순환 C-M-C에서는 물건을 팔아 다른 사용가치를 산다. 자본의 일반식 M-C-M'에서는 화폐가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 투입된다. 자본은 단순한 기계나 돈이 아니라 **가치를 자기증식시키는 사회관계와 운동**이다. 이윤이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서 생긴다면 사회 전체의 총이윤 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해답을 노동력이라는 특수 상품에서 찾는다.

5.5 노동력과 잉여가치

자본가는 “노동”을 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노동할 **능력인 노동력**을 산다. 노동력의 가치는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 교육·숙련, 역사적·문화적 생활수준과 연결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임금이론을 단순한 생물학적 최저생계비 이론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사회적으로 4시간의 필요노동에 해당하지만 노동일이 8시간이라면, 전반 4시간은 임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재생산하고 후반 4시간은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 기본 모델이다. **착취**는 계약 위반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노동력의 등가교환을 전제로도 발생한다.

5.6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일 연장이나 노동강도 상승으로 잉여노동시간을 늘린다. **상대적 잉여가치**는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이 싸져 필요노동시간이 줄면서 같은 노동일 안의 잉여부분이 커지는 방식이다. 기계화는 그래서 노동을 단순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경쟁적 축적과 노동통제의 사회관계 속에서 분석된다.

5.7 축적, 집중과 집적(중앙집중)

자본가는 경쟁 때문에 잉여가치를 소비만 할 수 없고 일부를 재투자한다. 이 과정이 축적이다. 마르크스의 용어를 구별하면 **concentration**은 개별 자본이 내부 축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centralization**은 합병·인수·신용을 통해 여러 자본이 더 큰 자본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현대의 M&A, 플랫폼 네트워크효과, 벤처자본을 그대로 마르크스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기업권력 집중을 보는 관점은 여전히 생산적이다.

5.8 산업예비군

축적은 노동수요를 늘리면서 동시에 기술·조직혁신을 통해 노동을 절약한다. 그 결과 실업자, 불완전취업자, 불안정 노동자 등 상대적 과잉인구가 재생산될 수 있다. 이 “산업예비군”은 경기확장기의 인력풀인 동시에 고용노동자의 교섭력에 압력을 가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현대에는 장기실업뿐 아니라 플랫폼 대기노동, 비정규직, 이민노동, 불완전취업을 검토할 때 개념적 유사성이 있다.

5.9 이윤율 저하경향

이윤율을 $s/(c+v)$ 로 보면, 경쟁적 기계화로 불변자본 c 의 비중이 노동력 v 보다 상승하고 새 가치의 원천을 노동에만 둔다면 이윤율에 하락 압력이 생긴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도 잉여가치를 상승, 자본요소의 저렴화, 대외무역, 상대적 과잉인구 등 **상쇄요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는 기계적·단조로운 장기 하락예언이 아니다. 현대 실증문헌에서도 측정방식과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다.

5.10 자본의 순환·재생산·경제위기

『자본론』 2권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의 순환과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분석한다. 생산수단 부문(I)과 소비재 부문(II)의 비례가 깨지거나, 상품이 팔려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신용이 과도한 축적을 지탱하다 붕괴할 때 위기가

나타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과잉생산, 이윤율, 불비례, 신용, 과잉축적 등 여러 메커니즘을 제시했지만 하나의 완결된 “위기 공식”을 남기지는 않았다.

5.11 스미스·리카도와의 계승과 결별

마르크스는 고전파의 노동가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세 지점에서 결별한다. ①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해 잉여가치를 설명한다. ② 가치의 크기뿐 아니라 **가치형태**와 화폐의 필연성을 묻는다. ③ 경제범주를 보편적 자연법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식의 역사적 범주로 본다. 따라서 그의 프로젝트는 “리카도 노동가치론+혁명정치”가 아니라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범주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중요한 원전 교정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는 문구를 비판하면서

자연도 사용가치와 물질적 부의 원천

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자연은 아무 가치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단순명제와 동일하지 않다.

CHAPTER 6

6.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과 현대 자본주의



그림 4. 산업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모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생성 일러스트.

6.1 마르크스는 “기술·산업 반대자”가 아니었다

『공산당 선언』은 부르주아지가 신분적·봉건적 관계를 해체하고 세계시장을 만들며 생산도구·교통·도시화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힘을 묘사한다. 『자본론』도 대공업의 생산력과 협업능력을 인정한다. 비판 대상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자본의 가치증식과 노동통제에 종속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전근대 공동체로의 낭만적 복귀론자와 다르다.

6.2 세계화

세계시장, 국제분업, 원료·노동력·판로를 찾아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는 자본의 운동은 오늘날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읽기 쉽다. 다만 현대 무역은 국가정책, 환율, 국제기구, 지정학, 지식재산권, 다국적기업 내부거래 등 19세기와 다른 제도적 층위를 갖는다.

6.3 금융자본주의

마르크스는 신용체계, 이자 낚는 자본, 주식회사,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을 다뤘다.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현재의 자산가격으로 거래되고 신용이 축적을 가속하면서 위기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점은 현대 금융화 분석에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현대 중앙은행·파생상품·담보사슬·금융규제는 별도의 화폐금융 이론 없이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6.4 플랫폼·빅테크

플랫폼은 전통적 공장과 다르지만 핵심 질문은 유사하다. 누가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접근권을 소유하는가, 알고리즘은 노동시간과 성과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네트워크효과가 경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최근 연구는 배달·승차공유 등에서 대기시간과 작업배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면서 무급시간이 확대되는 현상을 마르크스의 노동과정·잉여노동 개념으로 분석한다.

6.5 자동화·AI

『자본론』의 기계론은 기술혁신이 노동수요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숙련구조, 작업속도, 감독, 노동자 간 경쟁, 새로운 산업을 재조직한다고 본다. AI에도 이 관점은 유용하다. 반면 “AI는 불변자본이므로 오직 인간노동만 새 가치를 만든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해석은 현대 무형자산·소프트웨어·무료 디지털서비스의 가치측정에서 큰 논쟁을 낳는다. 2026년에도 AI 시대 노동가치론을 확장하려는 연구가 나오는 것은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6.6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마르크스의 강점은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분포가 아니라 **자산소유, 생산통제, 교섭력, 잉여의 귀속**이라는 관계로 보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 불평등은 교육, 조세, 가구구성, 기술, 금융자산 가격, 인종·성별 격차, 복지국가를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마르크스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CHAPTER 7

7. 역사발전 도식과 경제결정론 논쟁

7.1 ‘원시공산제 → 고대 → 봉건 → 자본주의 →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식인가?

마르크스의 1859년 서문은 “아시아적, 고대, 봉건, 현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경제적 사회형성의 진보적 시대로 언급한다. 그러나 오늘날 흔히 알려진 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보편적 5단계 교과서 도식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특히 “노예제”를 모든 지역이 거쳐야 하는 독립된 보편 단계로 공식화하지 않았고,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위치도 불안정하다.

1881년 자술리치에게 보낸 답변 초안은 더 중요하다. 러시아 농촌공동체가 서유럽의 자본주의 경로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세계시장과 이미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다른 발전경로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는 후기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을 하나의 선형 법칙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다.

7.2 경제결정론인가?

1859년 서문만 떼어 읽으면 경제구조가 정치·법·의식을 “결정”하는 일방향 모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역사저작은 훨씬 복잡하다. 『브뤼메르 18일』에서는 동일한 계급도 정치조직과 대표형태가 다르고, 국가 관료기구와 농민의 지리적 분산, 역사적 기억이 결과를 바꾼다. 엥겔스는 1890년 블로흐에게 경제적 요소가 “유일한 결정요인”이라는 해석은 무의미한 왜곡이라고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정확한 표현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은 “경제가 마지막에 제약한다”는 구조적 우선성을 갖지만, 실제 역사설명은 정치·법·이데올로기·조직·국제환경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경제환원론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비판 대상이었다.

CHAPTER 8

8.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

8.1 마르크스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얼마나 남겼는가

놀랄 만큼 적다. 마르크스는 푸리에식 공동체 설계나 세부 행정계획을 제시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공산주의를 생산수단의 공동통제, 계급지배와 임금노동의 폐지, 생산력 발전에 기초한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중앙계획의 구체 형식·가격체계·정당제도 등을 설계하지 않았다.

8.2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고타 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로부터 막 나온 공산주의의 첫 단계는 구사회의 “태생적 흔적”을 지니므로 노동기여에 따른 분배가 남고 실질적 불평등도 지속될 수 있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강제적 분업과 희소성이 극복되고 능력과 필요의 원리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75)

8.3 프롤레타리아 독재

1852년 바이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이어지고, 그것은 계급 자체의 폐지로 가는 과도기라고 썼다. 19세기 용법에서 “독재”는 오늘날의 개인독재와 정확히 같은 제도명칭이 아니며 계급 권력의 성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혁명적 과도기에 강제력과 정치권력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축소해서는 안 된다.

8.4 파리 코뮌과 국가

『프랑스 내전』에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기존 국가기구를 그대로 장악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뮌의 선출·소환 가능한 공직, 상비군의 대체, 행정의 공공통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국가를 즉시 완전히 없애자”는 아나키즘과도, 기존 관료국가를 그대로 확대하자는 입장과도 다르다.

“cannot simply lay hold of the ready-made state machinery”

노동계급은 “이미 만들어진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자기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Marx, The Civil War in France (1871)

8.5 사유재산의 폐지란 무엇인가

『공산당 선언』의 “사유재산 폐지”는 모든 개인적 소유물의 몰수가 아니라 타인의 임금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핵심 대상이다. 주택·생활용품 같은 개인적 사용재와 자본으로 기능하는 생산수단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실제 20세기 공산국가가 어디까지 국유화했는지는 별도의 역사적 선택이다.

CHAPTER 9

9.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후대 마르크스주의

9.1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완전히 같은가

둘은 1844년 이후 매우 긴밀하게 공동 작업했고 서로 원고를 읽고 경제·과학·정치 자료를 교환했다. 엥겔스의 경제적 지원과 산업지식은 『자본론』에 실질적이었다.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가 2·3권을 편집해 출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자본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학계에는 “Marx-Engels problem”이 있다. 테럴 카버 등은 엥겔스가 자연에까지 변증법을 확장하고 체계적 세계관을 만들면서 마르크스보다 결정론적·실증주의적으로 변형했다고 본다. 반대편 연구는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Anti-Dühring과 과학논의에 상당히 공감했고 두 사람의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신 엥겔스 연구는 양자를 “완전히 동일”하거나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오염시켰다”는 양극단 모두를 경계한다.

9.2 주요 재해석

사상가/전통	핵심 재해석	마르크스와의 차이·확장
레닌	전위당,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산업화가 덜 된 러시아 조건에서 조직론과 혁명전략을 크게 확장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축적, 제국주의, 대중파업, 자발성	당 중앙집권에 비판적이며 국제주의·대중행동을 강조
게오르크 루카치	물상화, 총체성, 계급의식	상품물신성을 사회 전체의 의식형태 분석으로 확대
안토니오 그람시	헤게모니, 시민사회, 진지전	서구 민주사회에서 강제뿐 아니라 동의·문화·조직이 지배를 유지한다고 분석
프랑크푸르트학파	도구적 이성, 권위주의, 문화산업	경제결정론을 비판하며 심리·문화·대중매체를 결합
루이 알튀세르	인식론적 단절, 구조적 인과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인간주의·주체 중심 독해를 거부하고 구조를 강조
에릭 홉스봄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사, 장기 19세기	정치경제학을 역사연구의 비교적 유연한 프레임으로 활용
데이비드 하비	공간적 해결, 도시화, 축적에 의한 수탈	지리·부동산·금융·도시를 자본축적 이론과 연결

CHAPTER 10

10. 주요 비판과 마르크스주의의 반론

10.1 경제학: 노동가치론과 전형문제

비판: 한계혁명 이후 주류경제학은 가치·가격을 한계효용, 희소성,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 기대와 정보로 설명한다. 노동은 이질적이며 토지·천연자원·시간·위험·자본서비스의 가격을 단일 노동량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또한 『자본론』 1권의 가치와 3권의 생산가격 사이를 연결하는 “전형문제(transformation problem)”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보hm-Bawerk 이후 지속되었다.

반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는 가치론을 단기 상대가격 공식으로만 읽는 것이 오독이라고 주장한다. 가치범주는 자본주의에서 사적 노동이 시장을 통해 사회노동으로 승인되는 형식, 이윤의 계급적 원천, 축적의 동학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분석마르크스주의자 일부는 착취 개념을 노동가치론과 분리해 재구성하기도 한다.

10.2 오스트리아학파

보hm-Bawerk는 가치·가격 전환의 모순을 공격했고,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생산수단의 사적 시장가격이 없는 중앙계획경제가 분산된 지식과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판은 마르크스의 가치론 자체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운영에 직접 겨냥된 측면이 크다. 마르크스가 상세한 중앙계획 모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논쟁을 곧바로 “마르크스의 공식 계획모델 반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사회화된 생산의 정보·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0.3 자유주의·보수주의의 비판

칼 포퍼는 역사법칙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주의”를 비판했고 마르크스주의가 반증을 회피한다고 공격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계급을 정치의 중심축으로 보는 관점이 개인의 권리·다원적 이해·법치와 정체성의 독립성을 축소한다고 본다. 보수주의 비판은 혁명이 복잡한 제도·관습·비공식 지식을 파괴하고 권력공백을 중앙집권으로 채울 위험을 강조했다.

10.4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자동붕괴하거나 중간계급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보통선거·복지·의회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10.5 계급론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베버는 계급뿐 아니라 지위(status)와 당파(party)를 독립적 권력원으로 보았고, 시장에서의 기술·자격·신용 등 다양한 계급상황을 구분했다. 현대 사회학은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 공공부문, 교육자격의 분화를 반영해 더 다차원적인 계층 모형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은 소유뿐 아니라 조직통제·권한·착취관계를 세분화하며 수정되었다.

10.6 역사적 예측: 맞은 부분과 빗나간 부분

주제	상당 부분 맞은 경향	빗나가거나 과장된 부분
세계시장	무역·자본·기술의 국제화가 확대	국민국가와 지정학이 약화되기보다 강하게 지속
기업집중	대기업·금융·플랫폼의 거대화와 M&A	중소기업·스타트업·새 산업의 지속적 생성

기술혁신	경쟁이 끊임없는 생산혁신과 노동재편을 강제	기술이 항상 실업·빈곤만 증가시키지는 않음
노동갈등	임금·시간·노동통제 갈등이 지속	노동조합·복지국가·노동법으로 갈등이 제도화된 사회도 많음
위기	주기적 금융·실물 위기는 반복	위기가 자동으로 자본주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음
계급양극화	상위 자산·기업권력 집중, 불안정 노동 확대 사례	광범한 중간계층·전문직·연금자산·주택소유 등 복합화
혁명	19-20세기 강력한 노동·사회주의 운동 등장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국에서 필연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반화되지 않음
국가	경제권력과 정책의 결합, 계급편향 사례	민주적 경쟁·복지·규제·독립기관 등 국가의 자율성과 다원성 과소평가 가능

CHAPTER 11

11. 현대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과 베버·뒤르켐 비교

11.1 사회학

계급, 노동과정, 소외, 이데올로기, 불평등, 역사적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전통의 핵심 원천이다. 현대 계급연구는 마르크스의 소유관계와 베버의 시장기회·지위 개념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11.2 경제학과 정치경제학

주류 미시가격이론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성장·분배·위기·자본축적·불평등의 장기구조를 연구하는 이단적 정치경제학, 세계체제론, 의존이론, 포스트케인스주의 일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11.3 정치학

국가의 계급성, 정당·사회운동, 혁명, 권력자원, 복지국가 형성, 자본과 민주주의의 긴장을 분석하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후대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의 장기 재생산을 관리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구조로 본다.

11.4 역사학

에릭 홉스봄, E. P. 톰슨 등은 생산관계와 계급을 강조하면서도 문화·경험·정치조직을 통합하는 사회사를 발전시켰다. 비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노동·산업화·계급형성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흡수했다.

11.5 문화·미디어 연구

그람시의 헤게모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산업,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후 문화연구는 경제적 권력과 의미·미디어·대중문화의 관계를 분석했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 창작노동, 데이터 상품화를 보는 비판적 미디어 연구에도 마르크스의 상품·노동 개념이 재등장한다.

11.6 국제관계

제국주의론, 세계체제론, 의존이론, 비판 국제정치경제학은 국가 간 권력뿐 아니라 국제생산·계급·자본 이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치를 설명한다. 다만 민족주의·안보딜레마·정체성·제도협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가 병존한다.

11.7 마르크스·베버·뒤르켐

항목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
핵심 문제	자본주의의 생산관계·계급·축적·지배	합리화·권위·시장·지위·종교와 행동의 의미	사회통합·분업·규범·집합의식·아노미
사회구조	생산양식과 계급관계 중심	다원적: 계급·지위·정당, 조직과 관료제	사회적 사실과 제도, 기계적/유기적 연대
자본주의	역사특수한 축적체계, 모순과 계급투쟁	합리적 자본주의와 관료제, 프로테스탄티즘의 문화적 기여	분업이 연대를 만들지만 아노미·강제적 분업 위험

방법	역사적·변증법적 비판	이념형, 이해사회학, 비교역사	사회적 사실의 실증적 설명
권력	계급지배·국가·이데올로기	정당한 지배 유형, 관료제, 권력의 다원성	도덕규범·제도·집합적 구속
상호보완	소유와 잉여의 구조를 강하게 포착	문화·정당성·조직을 더 세분화	규범·통합·제도의 자율성을 더 세분화

CHAPTER 12

12. 냉전 이후와 2008년 이후의 재평가

12.1 1989-91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붕괴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패배”로 널리 해석되었고, 서구 학계에서도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제도적 영향력이 감소했다. 동시에 정전의 붕괴는 마르크스를 소련의 국가교리에서 분리해 문헌학적으로 다시 읽는 공간을 열었다. MEGA(마르크스-엔겔스 전집) 프로젝트, 초기·후기 노트, 생애·비서구 사회·민족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12.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안정적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낙관을 흔들었고, 『자본론』의 위기·신용·축적 분석에 대한 대중적·학술적 관심을 부활시켰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전후해 대형 핸드북과 새 전기·『자본론』 강독이 다수 출간되었다. 이 재평가는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단순 부활이라기보다 위기·불평등·금융화·노동불안정이라는 질문의 귀환이었다.

12.3 오늘날 연구의 의미

마르크스는 현대 경제학의 대체교과서라기보다 **권력과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사회과학**을 제공한다. 누가 생산수단과 플랫폼을 소유하는가, 노동계약 뒤의 통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쟁이 왜 혁신과 불안정을 동시에 낳는가, 왜 인간이 만든 시장관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대로 인종·성별·식민주의·생태·민주제도·현대 화폐금융을 충분히 분석하려면 다른 이론과 경험연구를 결합해야 한다.

마르크스 이론의 현대적 적용: 설명력이 높은 곳과 낮은 곳

높음

- 축적·기업집중
- 노동·자본 권력관계
- 상품화·물신성
- 세계시장 확장
- 기술에 의한 노동재편
- 실업·불안정 노동의 규율효과

중간·조건부

- 금융화·신용위기
- 플랫폼경제·알고리즘 통제
- 자동화·AI와 노동가치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 불평등의 장기 추세
- 제국주의·글로벌 가치사슬

낮음·직접 적용 곤란

- 개별 상품의 시장가격 예측
- 현대 금융자산 가격결정
- 정확한 “붕괴 시점” 예측
- 복지국가·민주주의의 제도다양성
- 성·인종·정체성 자체의 충분한 이론
- 서비스·데이터의 가치측정 전부

원칙: “마르크스가 맞다/틀리다”보다, 어떤 분석 단위·조건·현상에서 개념이 유효한지 따지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림 5. 현대적 적용의 강도는 영역별로 다르다.

APPENDIX A

부록 A. 칼 마르크스 생애 연표

연도	주요 사건
1818	5월 5일 트리어(Trier) 출생. 법률가 하인리히 마르크스와 헨리에테 프레스부르크의 자녀. 양가 모두 랍비 가계의 배경을 가졌지만 부친은 직업상 제약과 계몽주의적 환경 속에서 개신교로 개종.
1830-1835	트리어 프리드리히-빌헬름 김나지움 재학.
1835-1836	본대학교 법학. 학생생활과 문학·철학에 관심.
1836-1841	베를린대학교. 법학보다 철학·역사 연구에 몰두하고 청년헤겔학파와 교류.
1841	고대 원자론에 관한 박사논문으로 예나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예나에서 수학한 것은 아니며 논문을 제출해 in absentia로 학위를 받음.
1842-1843	켈른의 Rheinische Zeitung 필자·편집자·편집장. 산림절도법, 모젤 농민, 자유무역 등 “물질적 이해관계”가 경제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
1843	제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 파리로 이동.
1844	파리에서 프랑스 사회주의와 영국 정치경제학 연구. 엥겔스와 재회하여 평생의 협업 시작. 『경제학·철학 수고』 집필.
1845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브뤼셀로 이동.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이후 『독일 이데올로기』 작업.
1847	공산주의자동맹 활동. 『철학의 빈곤』. 런던 대회에서 당강령 집필을 위임받음.
1848	『공산당 선언』 출간. 혁명기에 파리·켈른으로 이동, Neue Rheinische Zeitung 편집.
1849	반혁명 승리 후 독일·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런던 정착. 이후 사망 때까지 영국 거주.
1851-1862	New-York Daily Tribune 등에 국제정세·경제·식민지 문제 기사 기고. 대영박물관에서 경제학 연구.
1852	『브뤼메르 18일』.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과 계급대표·국가장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
1857-1859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경제학 연구 가속. 『그룬트리세』,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64	국제노동자협회(IWMA, 제1인터내셔널) 창립에 참여, 창립선언과 규약 작성에 핵심 역할.
1867	『자본론』 제1권 독일어 초판.
1871	파리 코뮌에 관한 『프랑스 내전』.
1872	제1인터내셔널 헤이그 대회. 바쿠닌계와 갈등, 총평의회 뉴욕 이전 결정.
1875	『고타 강령 비판』 작성.
1881	아내 제니 사망. 러시아 농촌공동체 문제를 두고 베라 자슬리치에게 답변 초안을 작성하며 비선형적 발전 가능성을 검토.
1883	3월 14일 런던에서 사망. 하이게이트 묘지에 안장.

APPENDIX B

부록 B. 주요 저작 연표와 핵심 내용

연도	저작	핵심 내용
1843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 및 『헤겔 법철학 비판』	국가·시민사회·종교비판. 헤겔의 관념론적 국가론을 뒤집어 현실의 사회관계에서 정치형태를 설명하려는 전환.
1844	『경제학·철학 수고』	소외노동, 사유재산, 인간의 종적 존재, 공산주의를 둘러싼 초기 철학적 어휘. 생전 미출간.
1845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수동적 관조의 유물론을 비판하고 실천(praxis)을 강조. 제11테제가 가장 유명.
1845-46	『독일 이데올로기』(엔겔스와 공저)	생산·분업·소유·계급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재구성. 생전 미출간.
1847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 비판. 경제범주를 영원한 자연법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관계로 파악.
1848	『공산당 선언』(엔겔스와 공저)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역사역할, 세계시장, 계급투쟁, 공산주의 정치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
1852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계급이해, 국가, 정당, 농민, 정치대표, 우발성이 얹히는 구체적 역사분석의 모범.
1857-58	『그룬트리세』	정치경제학 연구노트. 생산·분배·교환, 자본의 순환, 기계·일반지성 등 『자본론』으로 가는 실험실.
1859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상품·화폐 분석과 유명한 서문. 생산력/생산관계, 토대/상부구조의 정식화.
1867	『자본론』 제1권	상품, 가치형태, 화폐, 노동력, 잉여가치, 노동일, 기계, 축적, 산업예비군, 원시적 축적.
1871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을 통해 기존 국가기구와 노동자 정치권력 문제를 재사유.
1875	『고타 강령 비판』	라살레주의 비판, 공산주의의 낮은/높은 단계, 분배, 국가, 노동 개념을 명확화.

APPENDIX C

부록 C. 핵심 개념 20개 용어집

용어	정의·주의점
소외 Alienation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생산활동·타인·자기 잠재력과 낯선 관계에 놓이는 현상. 초기 저작에서 두드러지나 후기의 물신성·지배 분석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강하다.
유물론 Materialism	사상·법·정치를 현실의 인간활동과 물질적 생활조건으로부터 설명하려는 방향. 단순한 물질 일원론과 동일하지 않다.
역사유물론 Historical materialism	사회변동을 생산, 재생산, 계급관계,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프로그램. 마르크스 자신이 완결된 교과서 형태로 제시한 체계는 아니다.
변증법 Dialectics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관계·과정·모순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헤겔의 영향을 받되 관념론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전유한다.
생산력 Forces of production	노동력, 지식, 기술, 도구, 협업능력 등 생산의 물질적·사회적 능력.
생산관계 Relations of production	생산수단의 소유·통제, 지휘, 노동,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
생산양식 Mode of production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역사적 조직형태. 자본주의·봉건제 등을 비교하는 분석단위.
토대/상부구조 Base/Superstructure	경제구조와 법·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은유. 일방향의 자동결정론으로 읽으면 과도한 단순화가 된다.
계급 Class	생산수단과 잉여에 대한 관계, 시장·노동관계, 정치적 조직화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위치.
계급투쟁 Class struggle	상이한 계급 이해가 임금·노동시간·재산권·국가·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과정.
이데올로기 Ideology	사회관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관념형태. 마르크스의 용법은 저작과 시기마다 다층적이다.
국가 State	계급지배와 사회통합을 조직하는 정치형태. 단순한 “자본가의 꼭두각시”보다 복잡하게 기술되는 대목이 많다.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력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임금노동자 계급.
부르주아지 Bourgeoisie	자본과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고 임금노동을 고용해 축적하는 지배적 자본가 계급.
상품 Commodity	사용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환을 위해 생산되는 재화·서비스. 자본주의 부의 기본 형태.
추상노동 Abstract labour	서로 다른 구체노동이 시장교환 속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간노동의 지출로 환원되는 측면.
노동력 Labour-power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분이 잉여가치 이론의 핵심.
잉여가치 Surplus value	노동력이 자신의 재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새 가치를 생산한다고 보는 마르크스의 개념.
상품물신성 Commodity fetishism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가 사물·가격·시장 자체의 자연적 속성처럼 나타나는 현상.
자본축적 Accumulation	잉여가치의 일부를 재투자해 자본규모를 확대하는 과정. 경쟁, 기술혁신, 집중·집적과 연결된다.

APPENDIX D

부록 D. 마르크스·애덤 스미스·리카도·헤겔 비교 표

항목	헤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마르크스
핵심 질문	정신·자유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분업·교환·시장질서가 부를 어떻게 증대시키는가	가치와 소득분배(임금·이윤·지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가치·축적·계급·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방법	변증법적 관념론	도덕철학+정치경제학	추상적 정치경제학	변증법적·역사적 비판 정치경제학
노동	자기형성의 활동이라는 철학적 의미	부의 원천, 분업과 생산성	가치의 주요 기준	구체노동/추상노동, 노동/노동력 구분
가치	경제가 핵심 주제는 아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초기사회 노동설명과 자연가격	재생산 가능한 상품의 상대가치를 노동량 중심으로 설명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가치형태, 화폐, 생산가격 문제
자본	시민사회의 한 요소	축적된 stock, 생산성·분업 촉진	생산에 사용되는 축적된 노동/자본	자기증식하는 가치이자 계급적 사회관계
역사	모순을 통한 정신의 발전	상업사회의 발전과 문명	역사철학은 제한적	생산양식·계급투쟁·정치적 상호작용
비판/계승	변증법·역사성 계승, 관념론과 국가신비화 비판	분업·시장·노동분석 계승, 계급조화·자연화 비판	노동가치와 분배문제 계승, 노동력·잉여가치·가치형태로 재구성	종합적 비판 프로젝트

APPENDIX E

부록 E. 마르크스와 레닌·스탈린·마오의 차이

항목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
역사적 조건	19세기 서유럽 산업자본주의	제정러시아·세계대전·혁명	내전 이후 소련의 국가건설·공업화	반식민·농업국 중국의 장기 내전
혁명 주체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이나 동맹·정치조건 중시	프롤레타리아트+전위당, 농민과의 동맹	당-국가가 사회주의 건설의 중심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과 농촌 기반을 크게 확대
정당론	완성된 전위당 이론 없음	직업혁명가·민주집중제·전위당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일당 체제	공산당 지도+대중노선
국가	계급지배의 정치형태, 코민에서 새로운 형태 모색	부르주아 국가기구 파괴와 소비에트 권력	강력한 중앙국가·계획·보안기구	혁명국가+지속적 계급투쟁 강조
경제체제	공산주의의 세부 청사진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	NEP 등 전술적 혼합, 국가사회주의 과도기	강제집단화·중앙계획·중공업 우선	토지혁명·인민공사·대약진 등 중국식 실험
국제전략	국제주의, 세계시장·국제 노동운동 중시	제국주의론·세계혁명	“일국사회주의”를 국가전략으로 정식화	제3세계 혁명·게릴라전의 영향 확대
이론의 특징	자본주의 비판과 역사분석	마르크스주의를 제국주의·당·혁명 문제에 재구성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교리로 표준화	모순론·실천론·농촌 중심 혁명 전략
마르크스와 동일?	기준점	아니며 중요한 추가·변형	더 큰 제도적·정치적 변형	농민·문화혁명론 등에서 뚜렷한 변형

해석상의 주의

“마르크스 → 레닌 → 스탈린 → 마오”를 단일 직선으로 보면 각 체제가 발생한 전쟁, 제국붕괴, 농업구조, 국가건설 조건이 사라진다. 이 표는 영향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직접 동일시를 피하기 위한 비교다.

APPENDIX F

부록 F. 현대적 설명력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

영역	평가	설명력이 남는 이유	직접 적용의 한계
자본 집중·기업 권력	높음	축적·경쟁·M&A가 규모와 통제를 확대한다는 관점은 빅테크·금융·플랫폼 집중을 보는 데 유용	독점규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효과의 현대 이론이 필요
노동과 권력	높음	고용계약의 형식적 자유와 생산과정의 통제 차이를 분석	현대 노동법, 인적자본, 복지국가와 결합해야 함
상품화·물신성·이데올로기	높음	가격·평점·알고리즘이 사회관계를 객관적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 설명	문화·심리·미디어 수용자 연구를 추가해야 함
세계화·공급망	높음-중간	세계시장 확대, 경쟁, 비용절감, 노동력 재배치에 대한 통찰	현대 다국적기업·무역정책·환율·국제기구 분석이 필요
금융화·위기	중간-높음	신용·가공자본·실현 문제·과잉축적 개념이 유용	현대 중앙은행·파생상품·거시건전성·화폐이론을 보완해야 함
플랫폼경제	중간-높음	노동시간 포착,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네트워크 집중의 권력관계 분석	무료 사용자 데이터·무형자산·양면시장 가치측정은 별도 이론 필요
AI·자동화	중간	기계가 노동과정·숙련·통제를 재구성한다는 분석은 매우 유용	AI가 가치·생산성·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가치론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불평등	중간-높음	자산소유·잉여귀속·계급권력이라는 관계적 설명 제공	세금·교육·가구·인구·정책 요인의 계량분석이 필요
시장가격 이론	낮음	가치·형태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분석은 의미	한계효용·정보·기대·게임이론 등을 대체하는 단기 가격모형은 아님
정확한 붕괴예측	낮음	위기와 모순을 경향으로 분석하는 통찰은 존재	마르크스는 단일한 낱자·자동붕괴 모형을 완성하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적응력도 과소평가된 경우가 있음

APPENDIX G

부록 G. 대표적 오해와 실제 주장

대표적 오해	원전·연구에 비춘 교정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오직 악으로 보았다.”	아니다. 봉건적 신분질서를 파괴하고 생산력·세계시장·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킨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동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관계의 모순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모든 가격이 노동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아니다. 가치와 시장가격을 구분했고, 『자본론』 3권에서는 경쟁과 평균이윤율을 통해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다뤘다. 다만 그 해법은 논쟁적이다.
“착취는 단순히 낮은 임금이나 사기다.”	마르크스에게 착취는 합법적 등가교환이 이루어져도 노동력의 사용가치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관계다.
“역사는 경제가 100% 자동 결정한다.”	과도한 단순화다. 경제적 조건을 최종적 제약으로 중시했지만 정치·법·이데올로기·조직·우발성의 반작용도 인정했다. 엥겔스는 1890년 블로흐에게 “경제가 유일한 결정요인”이라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부정했다.
“마르크스가 5단계 발전론을 완성된 공식으로 제시했다.”	정확하지 않다. 1859년 서문은 아시아적·고대·봉건·현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언급하지만, 후대 소련 교과서식 보편적 5단계 도식은 훨씬 더 경직된 체계화다.
“공산주의 사회의 세부 설계도를 마르크스가 남겼다.”	아니다. 그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경계했고, 『고타 강령 비판』과 『프랑스 내전』 등에서 제한된 제도적 단서를 제시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만든 공식 명칭이다.”	아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통상 플레하노프가 1891년에 사용한 용어로 보며 이후 소련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정식 교리명이 되었다.
“소련·스탈린의 모든 정책은 마르크스의 직접 처방이다.”	아니다. 레닌주의·스탈린주의는 20세기 특정 혁명·내전·국가건설 조건에서 형성된 독자적 정치전략과 제도다.
“마르크스는 중간계급이 즉시 사라진다고 예언했다.”	그는 자본 집중과 양극화 경향을 강조했지만 실제 자본주의는 전문직·관리직·복지국가·자영업 등 복합적 계층을 발전시켰다. 계급 양극화의 강도와 형태는 역사적으로 다양했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소련 붕괴로 모두 반증되었다.”	소련 체제의 실패는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정치경제를 평가하는 데 핵심이지만, 자본주의 분석·계급·상품화·위기·이데올로기 이론 각각의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APPENDIX H

부록 H. 추천 독서목록

H-1. 가장 중요한 원전 10권/텍스트

순서	원전	읽는 이유
1	『공산당 선언』	가장 짧고 역사적 힘이 강한 입문. 단, 선동적 정치문서이므로 마르크스 전체를 대표하는 이론서로 읽으면 안 된다.
2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실천과 유물론의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3	『경제학·철학 수고』	소외와 인간해방의 초기 어휘를 이해하는 핵심.
4	『독일 이데올로기』(선별)	생산·분업·이데올로기와 역사관의 형성.
5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 일』	추상적 계급결정론이 아닌 실제 정치분석을 볼 수 있다.
6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서론	토대/상부구조와 방법론의 핵심 문서.
7	『그룬트리세』(선별)	『자본론』 전 단계의 풍부한 연구노트와 기계·세계시장 논의.
8	『자본론』 제1권	정치경제학의 중심. 제1장·노동일·기계·축적·원시적 축적을 우선 읽는 방법도 유효.
9	『프랑스 내전』	국가·코뮌·노동자 정치권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
10	『고타 강령 비판』	사회주의·공산주의·분배·국가를 둘러싼 오해를 교정하기에 가장 중요.

H-2. 입문·심화 연구서 20권

난이도	연구서	특징
입문	David McLellan, Karl Marx: A Biography	고전적이면서 읽기 쉬운 전기.
입문	Jonathan Sperber, Karl Marx: A Nineteenth-Century Life	마르크스를 19세기 정치·지성사 안에 위치시키는 비신화적 전기.
입문	Gareth Stedman Jones,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정치언어와 역사맥락에 민감한 대형 전기.
입문	Allen W. Wood, Karl Marx	철학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정리.
입문	Shlomo Avineri,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정치철학과 국가·사회 문제의 고전적 해설.
입문	Ben Fine & Alfredo Saad-Filho, Marx's Capital	『자본론』 경제이론의 압축적 안내.
입문	Michael Heinrich, An Introduction to the Three Volumes of Karl Marx's Capital	가치형태·화폐·자본을 현대적 독해로 정리.
입문	David Harvey, A Companion to Marx's Capital, Vol. 1	공간·도시·축적의 관점이 강한 강독.
입문	Marcello Musto, Another Marx	후기 마르크스와 덜 알려진 노트·정치활동을 강조.
입문	The Oxford Handbook of Karl Marx, eds. Vidal et al.	현대 연구쟁점을 분야별로 폭넓게 확인.
심화	G. A. Cohen, Karl Marx's Theory of History: A Defence	분석마르크스주의의 생산력 해석. 강력하지만 논쟁적.

심화	Jon Elster, Making Sense of Marx	방법론적 개인주의 관점의 비판적 재구성.
심화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노동을 초역사적 해방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매개형태로 재독해.
심화	William Clare Roberts, Marx's Inferno	『자본론』 1권을 정치이론·지배비판으로 읽는 독창적 연구.
심화	Kevin B. Anderson, Marx at the Margins	민족·식민지·비서구 사회에 관한 후기 마르크스의 복합성을 분석.
심화	Terrell Carver, Marx and Engels: The Intellectual Relationship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차이를 문제화하는 대표 연구.
심화	Kaan Kangal, Friedrich Engels and the Dialectics of Nature	엥겔스·자연변증법 논쟁을 최신 문헌학으로 재검토.
심화	Kohei Saito, Marx in the Anthropocene	생태·물질대사 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 해석 논쟁이 큰 책.
심화	Erik Olin Wright, Understanding Class	마르크스 계급론을 현대 사회학적 계급분석과 접속.
심화	David Harvey, The Limits to Capital	공간, 지대, 금융, 위기를 결합한 현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SOURCES

참고문헌·원전·연구자료

1. 1차 자료(Primary Sources)

1. Marx, Karl.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2. Marx, Karl. Theses on Feuerbach (1845).
3.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The German Ideology (1845-46).
4. Marx, Karl. The Poverty of Philosophy (1847).
5.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8).
6.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52).
7. Marx, Karl. Grundrisse (1857-58).
8. Marx, Karl.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9), Preface.
9. Marx, Karl. Capital, Vol. I (1867); Vols. II-III, ed. Engels (1885, 1894).
10. Marx, Karl. The Civil War in France (1871).
11. Marx, Karl.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75).
12. Marx, Karl. Drafts and Letter to Vera Zasulich (1881).
13. Engels, Friedrich. Letter to Joseph Bloch, 21-22 September 1890.

2. 주요 2차 연구

1. Avineri, Shlomo.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2. Carver, Terrell. Marx and Engels: The Intellectual Relationship.
3. Cohen, G. A. Karl Marx's Theory of History: A Defence.
4. Elster, Jon. Making Sense of Marx.
5. Fine, Ben and Alfredo Saad-Filho. Marx's Capital.
6. Harvey, David. The Limits to Capital: A Companion to Marx's Capital.
7. Heinrich, Michael. An Introduction to the Three Volumes of Karl Marx's Capital.
8. Kangal, Kaan. Friedrich Engels and the Dialectics of Nature (2020).
9. McLellan, David. Karl Marx: A Biography.
10. Musto, Marcello. Another Marx.
11. Postone, Moish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12. Roberts, William Clare. Marx's Inferno.
13. Sperber, Jonathan. Karl Marx: A Nineteenth-Century Life.
14. Stedman Jones, Gareth.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15. Vidal, Matt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Karl Marx.
16. Wood, Allen W. Karl Marx.

3. 온라인 원전·학술 참고자료

1.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Karl Marx".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arx/>
2.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Dialectical materialism". <https://www.rep.routledge.com/articles/thematic/dialectical-materialism/v-1>

3. German Historical Museum (DHM), Karl Marx biography. <https://www.dhm.de/lemo/biografie/karl-marx>
4. Marx/Engels Internet Archive, Capital Vol. I.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7-c1/>
5. Marx/Engels Internet Archive, Preface to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59/critique-pol-economy/preface.htm>
6. Marx/Engels Internet Archiv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5/gotha/>
7. Marx/Engels Internet Archive, The Civil War in Franc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1/civil-war-france/>
8. Marx-Zasulich Correspondenc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81/zasulich/>
9. Vidal et al., Oxford Handbook of Karl Marx (2019).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34643>
10. Cini, “How algorithms are reshaping the exploitation of labour-power” (2023).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186-023-09520-9>
11. Wang, “Labor-capital relations on digital platforms” (2024). <https://compas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soc4.13192>
12. Zhang, “The labor theory of value in the era of AI and digital platforms” (2026).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9-026-07030-4>

4. 자료 해석에 관한 주

마르크스·엔겔스의 온라인 텍스트는 판본과 번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밀한 학술 인용에서는 MEGA, Marx-Engels Collected Works, Penguin/New Left Review판 『자본론』 등 비평판과 대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의 직접 인용은 짧게 제한하고, 대부분은 문맥을 보존하는 요약·비판적 해설로 제시했다.

‘변증법적 유물론’ 용어의 기원, 초기/후기 마르크스의 단절, 엔겔스의 자연변증법, 러시아 공동체와 역사발전, 노동가치론의 현대적 지위는 각각 학계의 논쟁사항이므로 단일한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